

심판자이신 예수님

1. 말씀읽기: 마태오 25,31-4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¹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³²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³³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³⁴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³⁵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³⁶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³⁷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³⁸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³⁹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⁴⁰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⁴¹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⁴²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⁴³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⁴⁴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⁴⁵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⁴⁶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심판자이신 예수님

교회는 연중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왕 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방식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내어주심입니다. 용서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도 바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통치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며, 주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2.1. 최후의 심판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미사를 봉헌할 때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다릅니다.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과 벌을 주십니다. 늦게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① 예수님의 재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마태 25,21)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옥좌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② 심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은 뽑힌 선인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멸망할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한 생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내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③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상

올바른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한 생을 의롭게 살아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25,34)

예수님께서서는 구원 받을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복을 받은 이들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한 이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이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이들은 아버지 하느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고, 배은망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이나 자기 자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의로운 이들에게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십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해 주신 나라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입니다. 바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입니다.

④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는가?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³⁶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25,35-36)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의로운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⑤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주님께 해 드린 것

하지만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이런 선한 일을 했구나!”라고 떠벌리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덕

